

INDEX

◎ 한국IPG의 활동

- 「한국지식재산보호정보세미나」 개최 01
- 변해가는 한국의 지식재산 마인드 03
- 한국에서 개최되는 모방품 판정세미나 안내 04
- 글로벌 지식재산온라인 교육 05

◎ IP를 알아

- 한국 IP뉴스 06
- 「신·지재최전선은 지금」 07
 - 활용하고 싶은 특허 핵심사 청구제도
 - 거국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
- 08

한국IPG 회원 등록

http://renew.jetro-ipr.or.kr/info.asp?br_main=9

한국IPG는 일본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사무국으로부터

〈한국IPG INFORMATION〉 제10호부터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PG INFORMATION에 대한 의견이나 소감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UTION

〈한국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한국IPG의 활동

‘한국지식재산보호정보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2011년 9월 28일(수) 14:00~17:30

장소: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5층 ABCD회의실

주최: 일본특허청,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한국IPG

강연내용:

14:00-14:10	개회
14:10-14:40	「한국의 모방대책 현황, 한국IPG의 모방품 대책 업무」 한국IPG(JETRO·서울사무소) 이와타니 가즈오미 부소장
14:40-15:30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현황」-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특허청(KIPO)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오영덕 대장
15:30-15:40	휴식
15:40-16:30	「한국 위조상품 유통근절 소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 이민재 사업본부장
16:30-17:20	「포케몬코리아의 모방품 대응에 대해」 주식회사 포케몬코리아 하세가와 히로후미 대표이사
17:20~	폐회

사회: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진출기업지원·지적재산부 지적재산과 요시무라 과장

‘한국지식재산보호정보세미나’ 개최

한국IPG는 JETRO 도쿄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9월28일에 각 기업의 지식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모방품 대책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정보세미나’를 도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운영현황 -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강사: 한국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오영덕 대장

한국에서는 작년 9월 특허청내에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를 발족하여 전문성을 살려 모방품 단속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니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대 도입 이후 최근 6월까지 형사입건 116건, 압수물품 46,866건이라는 높은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연에서는 모방품에 대한 제보, 비밀공장에서의 잠입수사, 증거품 압수,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생생한 단속 사례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가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모방품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IP 주소와 계좌 추적 등을 거쳐 검거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사례 등, 모방품 유통 실태 및 특별사법경찰대의 활약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CCTV추적)



(제조공장 내부)



한국IPG는 기업으로부터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접수하여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에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위조상품 박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한국 위조상품 유통 근절 소개

강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 이민재 사업본부장

위조상품 판매가 점포에서 쇼핑몰로 확대되어 현재는 위조상품 구매 거래의 24.7%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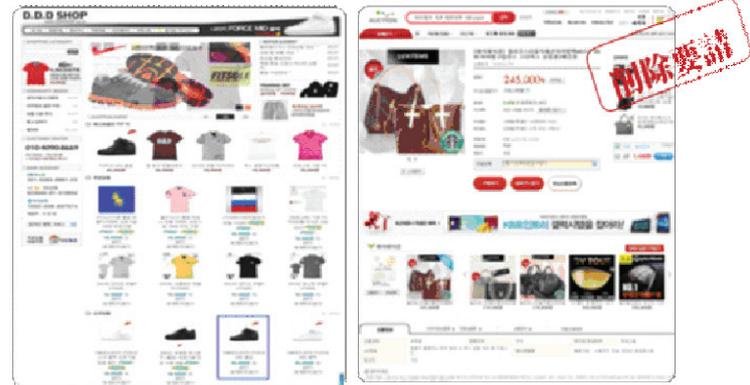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KIPRA)는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IPOMS’를 개발하여 24시간 자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찰대의 활약에 크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는 옥션 등의 각 오픈마켓에서 1시간마다 약 3000만건의 정보를 수집하여 키워드, 블랙리스트, 가격비교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자동 식별하여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거나 판매 동향에 대한 분석, 경찰대와의 위조상품 단속 연대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또한 KIPRA에서는 위조상품 구매를 하지 않도록 각종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계몽 공익광고에 대해서도 소개해주셨습니다.

(온라인 자동감시)

(위법사이트 삭제요청 등)



앞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온라인상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IPRA의 IPOMS 시스템이 더욱 중요해질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 포케몬코리아의 위조상품 대책에 대해

강사: 주식회사 포케몬코리아 하세가와 히로후미 대표이사

주식회사 포케몬코리아는 2006년 8월에 설립된 이후 포케몬의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8년부터 포케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위조상품이 급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위조상품은 정품과 유사하게 만든 것만이 아니라 위조상품이 시리즈화되는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수의 위조상품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러한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상표권의 활용, 세관에서의 국경조치, 한국내 유통업자에 대한 경고

문 배포, 소매점 단속과 계발활동, 특허청과 경찰 협력에 의한 적발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정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어필 등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유통업자가 정품을 원하도록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단순한 단속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극복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품 성격에 따라 좌우되지만 위조상품에 대한 대책은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해야만 합니다.

모든 강연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각 기업의 위조상품 대책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미나였습니다. 협력해 주신 강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압수된 위조상품)



(정품에 대한 어필)



변해가는 한국의 지식재산 마인드

한국에서는 최근 정부에 의한 여러가지 모방품 대책이 실시되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의 기술 수준도 급속히 진보하여, 이미 최첨단 기술 수준에 달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특허청이 2010년에 조사한 모방품 피해 실태조사에서는 27.3%의 한국기업이 모방품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기업이 모방품 피해를 당한 비율인 24.6%(「2010년도 모방품 피해조사 보고서」, 일본특허청)를 넘는 수치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기업은 모방을 하는 입장에서 모방을 당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내의 지식재산 마인드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의 중소기업 신발 메이커가 대기업을 상대로 데드카피 제품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소하여 승소하였다는 판결이 내려졌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태권도/무술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한국의 중소기업 M사가 자사의 주력상품으로 개발/판매한 태권도 신발을 국내 유명 스포츠용품 메이커 H사가 모방 생산하였다고 하여,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사의 제품에 대해 전체적인 형상, 색채는 물론, 신발 밑창의 무늬와 통기구멍의 수와 위치, 스티치의 형태, 그리고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위치 등, 세부 형태가 매우 유사하여, 상표를 빼면 마치 같은 상품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며 모방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M사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천만원(약6백만엔)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M사가 중소기업이며 긴 개발기간을 걸쳐 상품을 발매한 직후에 대기업인 H사가 모방품으로 경합한 결과, 오히려 일반 수요자는 M사의 제품이 모방품이라고 잘못 인식해 반품이 늘어나, 그로인해 M사의 기업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하여, 추가로 2천만원(약 150만엔)을 M사의 피해로 인정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1월 14일 판결 선고, 2010가합29077판결)

물론, 이 사례 하나만으로 한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마인드가 높아졌는지를 확실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소송을 걸고, 재판부는 데드카피라고 인정 한 후에 경제적인 손실뿐 만 아니라, 모방품에 의한 기업 이미지에 대한 손해도 인정하는 사례로, 한국내 지식재산 마인드의 향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모방품 판정세미나에 대해(안내)

한국IPG는 한국특허청과의 협력양해각서(MOU)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대 직원을 대상으로 「모방품 판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모방품 판정 세미나는 일본기업의 담당자가 강사로 한국 현지에 오셔서, 상표경찰대에 대해 진품과 모방품을 구별하는 판정방법과 모방품 취급업자와 유통경로 등의 정보를 강의하는 것으로, 상표경찰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방품의 유통을 저지하기 위한 매우 유효한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일정

2011년 10월 27일(목) 15시~18시(1개사 당 40분~1시간)

장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 <http://iipiti.kipo.go.kr/EN/>

모집기업수

3개사 내지 4개사(선착순)

응모마감

10월 7일(금)

응모방법

상세한 내용과 신청서는 JETRO 서울사무소 지재팀 홈페이지 (<http://renew.jetro-ipr.or.kr/>) 알림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기입하신 후 메일로 신청바랍니다.

기타 사항

1. 모집 대상기업은 ①한국 국내에서 정품 유통량이 일정부분 있는 기업 중, ②모방품 판정방법, 모방품 유통실태, 기업 내에 있어서의 모방품 대책, 상표경찰대에 대한 요망 등에 관해 강의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참가시 모방품 샘플을 이용하여 설명해 주신다면, 더욱 효과적인 강의를 가능할 것입니다.
3. 세미나 자료는 일본어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JETRO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므로 10월 14일(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한국어로 제출하실 경우는 10월 20일(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비는 무료입니다만, 세미나장까지의 교통비는 각 기업

에서 부담하셔야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에서 세미나장까지는 버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5. 세미나는 일한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처

JETRO서울 사무소 지재팀 이와타니(岩谷), 조은실

전화 : +82-2-3210-0195(한국 국내에서는 02-3210-0195)

메일 : jetroiirseoul@gmail.com

(일본어로 문의 가능)

또는 JETRO 본부 지적재산과 나루세(成瀬), 다카하시(高橋)

전화 03-3582-5198

메일 CHIZAI@jetro.go.jp



글로벌 지식재산온라인 교육!

영어로 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식재산권을 공부하세요!

한국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 기구와 공동으로 개발한 영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식재산권을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글로벌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에 투자하여,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기초과정(IP Panorama), 특허정보검색과정(IP Xpedite)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global.ipacademy.net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P Panorama란?>

- ◎ 총 12개 모듈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듈당 학습소요시간은 약 1시간30분입니다.
- ◎ 법적 관점에 포커스를 맞추던 기존 지재권 과정과 달리 IP 파노라마는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문제와 활용전략을 다루고 있어 지재권 비즈니스 교육에 적합한 과정입니다.
- ◎ 콘텐츠가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설계되어, 각 모듈별 주제에 따라 서로 다른 인물과 회사, 제품이 등장하여 현장감 넘치는 지재권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 ◎ 지식재산권에 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고자하는 기업체 직원, 지재권 비즈니스 마인드 형성이 필요한 기업의 신입 사원에게 적합한 과정입니다.

목차

- 01 Importance of IP for SMEs
- 02 Trademarks and Industrial Designs
- 03 Inventions and Patents
- 04 Trade Secrets
- 05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06 Patent Information
- 07 Technology Licensing in a Strategic Partnership
- 08 IP in the Digital Economy
- 09 IP and International Trade

- 10 IP audit
- 11 IP Valuation
- 12 Trademark Licensing

<IP Xpedite이란?>

- ◎ 총 14개 모듈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듈당 학습소요시간은 약 1시간30분입니다.
- ◎ 모듈별로 제시되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다양한 시연을 통해 국제적 관점의 지재권 정보에 관한 가치, 검색방법, 분석방법 및 특허정보의 해석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 실제 사례를 따라하면서 쉽게 지식재산권 정보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 ◎ 지재권 정보의 기초 개념 및 그 활용방법에 대해 학습하고자하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지재권 기초 개념을 습득한 자로서 지재권 학습의 다음단계로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는 과정입니다.

목차

- 01 Value of IP Information
- 02 Characteristics of the IP Systems of Major Countries
- 03 IPR Database Source
- 04 Understanding and Searching for Patent Information
- 05 Understanding and Searching for Trademark Information
- 06 Patent Indicators
- 07 Patent Map
- 08 Preparation of Patent Maps
- 09 Advanced Search for Patent Documents Using an IPC and an F-term
- 10 International Application through the PCT System and its Strategies
- 11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 through Madrid System and its Strategies
- 12 Interpreting and Drafting Patent Documents in the US
- 13 Interpreting and Drafting Patent Documents in Japan and Korea
- 14 Interpreting and Drafting Patent Documents in EPO and Australia

자료제공: 한국발명진흥회 교육기획팀

한국특허청, 국제특허분쟁 정보검색서비스 제공(8/25)

-

최근 스마트폰과 LED 등, 한국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에서 특허분쟁이 심해지고 있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한국특허청은 기업맞춤형 국제특허분쟁 정보검색서비스를(이하, 분쟁정보 내비게이션이라 함)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를 통해 올해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제특허분쟁과 관련하여 한국기업은 분쟁관련 정보부족으로 인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다. 분쟁정보 내비게이션은 국제특허분쟁의 예측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개별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공한다.

한국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러시아, 대만특허 문헌 등을 릴리스(9/5)

-

한국특허청은 이번 달부터 민간을 위한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제공하는 해외특허정보의 범위를 지금까지의 8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KIPRIS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주요 8개국의 특허정보와 함께, 추가로 4개국(캐나다, 호주, 대만, 러시아)의 특허정보도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 JETRO 서울사무소 지재팀의 홈페이지(<http://www.jetro-ipr.or.kr/>)에서 KIPRIS의 활용방법 등을 소개한 한국특허정보검색 팜플렛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정부, 저작권협력틀을 구축(9/6)

-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문부과학성은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정병국장관은 9월6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최된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저작권담당 정부부서인 문화청에서 콘도오 세이이치(近藤 誠)문화청장관이 참가하여, 타카기 요시아키(高木 義明) 문부과학대신이 서명한 양해각서를 교환하

였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저작권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한일중간의 정책교류와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족1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의 성과와 과제(9/8)

-

한국특허청의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이하, 특사경이라 함)는 작년 9월에 발족한 후,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지난 1년간에 위조상품 사범으로 계 141명을 형사입건하여, 위조상품 약48,000여점(정품가격액 약12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런 단속실적은 특사경 발족이전(2000년1월~8월)에 비교하면, 월평균 실적기준으로 형사입건자수는 약6배, 압수물품은 약11배 정도 증가하였다. 오영덕 상표특별사법경찰대장은 “예산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선택과 집중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VS 애플, 특허전쟁 확대(9/18)

-

1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의 외신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애플의 iPhone, iPad의 무선기술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호주 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의하면, 삼성전자 호주법인은 애플의 iPhone 3G, 3GS, iPhone 4, iPad 2가 삼성이 보유한 무선통신기술특허 7건을 침해하였다고 주장. 또한, 지난달 애플의 주장으로 발매가 연기된 갤럭시탭에 대한 발매중지 처분의 철회를 호주연방재판소에 요청하였다. 로이터는 삼성전자가 한국, 일본, 독일에 이어 호주에서도 애플과의 소송문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의 IT전문매체인 Mashable은 18일(현지시간)에 삼성전자가 한국내의 iPhone 5의 발매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도 애플에 반격하기 위해, 프랑스 등의 유럽지역의 재판부에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양사의 특허전쟁은 확대되고 있다.

※상세한 기사, 그 외의 뉴스에 관한 것은 「한국지적재산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RL: http://renew.jetro-ipr.or.kr/newsLetter_list.asp



File No. 35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

활용하고 싶은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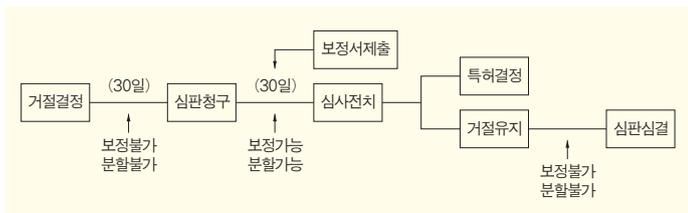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란, 특허출원후 심사 과정에서 거절결정되었을 경우,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재심사를 청구한다는 취지의 표시와 함께 명세서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다. 출원인에게는 거절결정 후 보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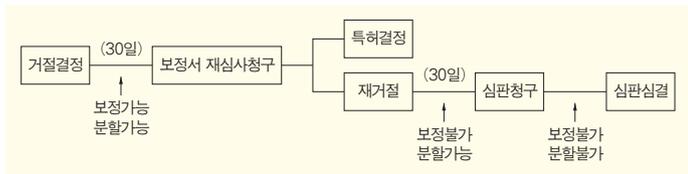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는 2009년7월1일 이후 의 특허출원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전에는 특허출원이 심사과정 에서 거절결정될 경우, 다시 한번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명세서의 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심사전치제도가 있었다. 하지만, 심사전치에서 상당수가 특허결정되어 결국 거절결정불복심판이 행하여지는 경우는 적은 것을 고려해, 굳이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이다.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의 도입전후의 수속절차를 간략하게 표시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도입전의 수속절차>(2009년7월1일 이전의 출원이 해당)



<도입후의 수속절차>(2009년7월1일 이후의 출원이 해당)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에서 주의해야 할 점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는 출원인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고, 재심사 청구시에 제출하는 보정서는 명세서 등을 보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기에 꼭 활용되기를 바라며, 편리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의할 점도 있다.

1.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는 명세서의 보정서에 재심사 청구의 표시만을 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는 아주 간단하기는 하지만, 마지막 보정 기회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재심사청구에 있어서의 보정은 종전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시의 명세서 보정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거절결정의 내용이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간연장 (2개월)를 신청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완벽한 보정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2. 재심사에서 재거절결정되면,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보정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재심사청구시의 보정서 작성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3. 재거절결정이 된 단계에서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청구항이 있으면, 거절결정 불복 심판청구를 하여도 승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포기하고, 그대신에 특허 가능한 청구항만을 모아서 분할 출원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할 수 있겠다.

맺음말

이와 같이 출원인에게 특허 재심사 청구제도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후의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시에는 보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사 청구시의 보정은 마지막 보정 기회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을 기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편리해진 이 제도의 활용과 함께 앞으로 보정의 기회도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번 해설자>

최달용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최달용

1945년생, 1974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82년 변리사 시험 합격, 1999년 최달용 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개소. 일본기업의 출원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한국지재관련 법령의 일본어 번역을 HP에 게재(www.choipat.com). 현재 대한 변리사회 부회장.

(감수: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 사무소 부소장 이와타니 카즈오미)





거국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기본법」이 한국 국회에서 올해 4월 29일에 가결되어,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동법에 의해 7월 28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드디어 한국에도 「거국적으로」 지적재산을 존중/보호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하나의 입법, 하나의 위원회의 출범으로 바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향후 한국에서 지재권의 지위가 한층 더 높아지고, 그 보호가 강화되길 기대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

2009년 11월의 초안발의로부터 1년 반이 지나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어, 2011년 7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제1조에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본정책과 추진체계를 갖추므로써, 「국가의 경제/사회/문화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향후 국가의 지적재산 관련 정책을 추진시, 하기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제2조)

1.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2.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보호/활용의 촉진 및 합리/공정한 이용 도모
3.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의 기반조성
4. 지식재산에 관한 규칙의 국제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의 유식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4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제6, 7조). 현재, 정부측에서 11명, 민간측에서 19명, 합계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측의 공동 위원장으로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님이 임명 되었다. 윤위원장은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한국공학한림원의 원장을 역임한 유명한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자이다.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

한편, 일본에도 「지적재산기본법」과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있다. 양국의 기본법은 서로 유사하며, 일본의 법률/제도가 이번 한국의 입법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양국의 제도비교>

		일본	한국
법률	명칭	지적재산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조문	4장 33개조	5장 40개조
	시행일	2003년 3월 1일	2011년 7월20일
추진기구	명칭	지적재산전략본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장	총리대신	총리와 유식자 1명
	위원	모든 국무대신 + 10명의 민간 유식자	관련관청 10개소의 장 + 18인의 민간 유식자
	전문부회	ad hoc, 현재 2개	상설, 5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의 기대

그러나 제도가 같아도 그 운영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양국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한국이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 추진이 스피디하며 파워풀하다는 것이 그 한가지 이유일 수 있다. 하나의 법률 제정으로 바로 지재입국을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성급한 생각일지 모르나,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의 위상 설정 및 그 보호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이 유도 거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 모두 기본법은 국가와 자치단체 뿐만이 아니라 대학과 사업자 등에게도 일정한 책무를 과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 주었으면 한다. 다시 말해, 회사는 우수한 지적재산의 창출/활용은 물론, 발명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에 신경 써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과 협력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해설자>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변리사 이후동

1964년생.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동경대학 법학 석사. 1985년 사법시험 합격.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지재팀 및 일본팀 리더. 특허법인 태평양 대표변리사. (감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 사무소 부소장 이와타니 카즈오미)

